진 술 서 (1회)

본적
주소
직업

심 재 철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합동 수사단 수배자로서 6월 30일 본인의 형 심영호, 심재수의 자수 권유로 방황하는 마음을 씻고저 자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오니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父 심 과 母 최 의 7남매중 일곱번째로 광주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형님·누나의 보호아래 성장하여 광주 수창 국민학교와 광주 무진 중학교와 광주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에 서울대에 응시하였으나 낙방, 1년의 재수 기간을 거친 뒤에 1977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영어학과

심2

3126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재학 기간중 매형인

사2 장종수, 오세환 의 도움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4학년에 진급하여 1980. 3. 28 본교의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되었읍니다.

당시 본인과 함께 입후보하였던 김기달과

양지청이 있었으나 위 2인 모두다 이전의

학도호국단에 간부로서 활동하였었던 바 많은

학생들의 학도호국단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어렵지 않게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읍니다.

서울대의 총학생회장은 각 과회장으로 이루어

지는 총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는 이른바 간접

선거 방식으로서 선거시에 생길 수 있는 선거

잡음의 방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의 선거는,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이것은

본인이 동 선거에 15만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곤란을 별로 느끼지 않는

본인이지만 사범대라는 특수성을 현직 교단에

서기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또한 내 손으로 자립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현해보고자 겨울방학

동안에 국민학교 학생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3127

아르바이트와 태양출판사에서 펴낸 영어 참고서
의 주해서를 만드는 아르바이트 2개를 하였읍
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2월까지
20만원 가량을 저축할 수 있었읍니다. 여기에다
80학년도 1학기 등록금 9만원을 집에서 타고
더우기 장학금 2만원 짜리를 받음으로써
2학기 개강을 전후하여 17·8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읍니다. 이 돈으로 선거 포스터와 사진 촬영,
본인의 소견문 인쇄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더우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선거비용
3만원 씩을 지급함에 따라 본인의 선거에
따른 비용은 부족함이 없었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본인의 양심에 따른 진술은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던 "김대중으로 부터 심재철의
안내에 따라 선거자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본인은 동교의 복학생으로 알려진 심재철과는
어떠한 인척관계도 없으며 심재철이라는 인물
과는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
합니다. 이렇듯이 본인은 심재철이라는 인물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더욱이 김대중의 집에
방문하였던 적도, 혹은 김대중이나 그의 측근자를

부터의 어떠한 면담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거운동 유세 중에 말한 "학생
운동은 정치와 관련을 가져서는 안된다. 만일 그
렇게 된다면 순수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호소력은 상실되고 만다."라는 요지의 발언과,
4월 11일 수원 농대에서 김상진 형 장례식 때 조문
하러 온 김대중 과 함석헌 옹이 말하기에 앞서
본인이 말한 "지금 김대중 씨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여러가지 의견들 중의
하나로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TIME 지
기자인 C.S. Chang 과의 회견 시 "세 김을 어떻
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NEWSWEEK
지에서 평해준 것이 적절한 것 같다" "기성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지금 학생이 정치인에게 큰 관심
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한바
있읍니다.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기성 정치인
특히 김대중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
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삭3 회장에 취임한 나의 학생회의 첫
사업은 4.19 20주년 기념 행사였읍니다.
기념행사 중 4월 11일의 농대에서 있은
장례식과 관악 캠퍼스에서 있은 추모식, 특히

할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교문으로 가되 교문을
벗어나지 않는데 힘을 다하기로 하고 경영대
회장 김희수나 인문대회장 노창준 등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잘 안되어 궁여지책으로
본인이 "계엄 해제를 14일 까지 하고 만일
그렇게 안될 때는 15일날 학생총회를 열자"고 제의
하고 "만일 휴교가 되어 등교할 수 없다면 15일날
오후 3시에 영등포에서 모이자"고 즉석 제의를
하였던바 어느정도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
다. 이렇게 하여 5월 2일의 고비를 넘긴 다음
본인의 신체 검사 때문에 본인은 5월 7일 고향인
광주로 내려갔다. 광주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10일 밤에 본교의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이수성
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학교가 엉망이라고
급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10일날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이때 고대에서 서울시내
학생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본교 대의원 의장인 유시민과 학생활동 위원장인
이홍룡이 참석하였다. 다음날인 일요일날 오후에
다시 본교에서 회의를 열어 15일날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15일날 교문
밖으로 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연대에서 온대표는 연대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했으나 전체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15일
날 교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전국 학생회장의 모임을 16일날
이대에서 열기로 하였다. 당시 본인은 교문밖으로
진출할 경우 반드시 휴교가 되리라고 예상
했었기 때문에 15일날 나가지 않기로 한 이상
16일날 회의를 무난히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일날 연대에서 교문밖으로 진출하자
본교의 분위기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3일 오후에
연대에서 밤에 세종문화회관 뒷길에서 모이자며
본교에서도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11일의 서울시대회장단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교문밖으로 진출한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타 대학에도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3일에 이어 14일날 다시 학생총회
를 열었으나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다.
14일날 교문밖으로 진출하여 영등포 시장
앞에서 30여분 이상을 연좌하였다. 연좌가
끝난 후 당초 계획대로 당산동을 거쳐 다시
도림 해방과 노량진을 거쳐 귀교하려고 하였으나
광화문으로 나가자는 여론이 빗발치며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당산동에서 대방쪽으로 돌아
가려고 50여 미터쯤 갔을 때 중간에서부터

서울역앞에 있는 그릴에서 몇개 대학 회장들이
모여 여의도 광장으로 빠져 나가기로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계속 대치 상태가
삭2 계속 되~~며~~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해 본인의 마이크로 버스 안에서 9개
대학 정도의 회장단들이 모여 협의를 하였다.
협의 결과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 같고 밤이
되면 통제가 완전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이대 총학생회장 안숙
과 연대 부회장과 본인 그리고 이수정 선수와 함
남대문서 정보과에 올라가 김 중한 내무부 장관실
게 이수정 선수께서 전화로 연락한 후 해산을 시작
하였다. 해산 후 고대에서 다시 회장단들이 모여
16일날 이대에서 모이는 시간을 오후 5시로 연결
하고 16일날은 시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16일 아침에 다시 본교로 돌아와 학생총회를
주재한 후 당일날 계명대에서 올라와 방문한
계명대 학생과 본 학생회의 외무부장 3명과 및
회육부 유수용과 함께 이대로 갔다. 5시 45분
쯤 도착하니 이미 회의는 시작되었던바 이 총동
은 회의 준비차 이미 도착하여 있었다. 16일
저녁에 장소를 옮겨 회의를 계속하였다. 17일
부터 곧장 가두 시위로 들어가자는 의견과 일정 기간 동안
관망을 한 연후에 다음 행동으로 옮기자는 의견, 그리고
계속 교내시위로 국한 하자는 3가지의 의견이 나왔다